호타준족의 롯데 외야수 민병헌, 전격 은퇴 선언

# 뇌수술 딛고 돌아왔던 민병헌, 결국 떠난다

**1월 뇌동맥류 수술후 기적의 컴백**
**시즌 마치려고 했지만 스스로 결단**
**"선수생활 종반 롯데서 마쳐 행복"**

민병헌 통산 성적

| 구분 | 성적 | 구분 | 성적 |
|---|---|---|---|
| 경기 | 1438 | 득점 | 751 |
| 타율 | 0.295 | 도루 | 187 |
| 안타 | 1266 | 출루율 | 0.362 |
| 홈런 | 99 | 장타율 | 0.426 |
| 타점 | 578 | | |

※ 2006년 두산서 데뷔
2018년 롯데로 이적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민병헌(34)이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롯데는 26일 "외야수 민병헌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다. 최근 현역생활 지속 및 은퇴 여부를 두고 숙고했던 민병헌은 26일 현역 은퇴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화곡초~잠신중~덕수고를 졸업한 민병헌은 2006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 전체 14순위로 두산 베어스의 지명을 받았다. 정교한 타격은 물론 빠른 발과 센스 있는 주루플레이로 2010년대 두산의 전성기를 활짝 연 주역이었다.

2006년 곧바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그는 5시즌을 뛴 뒤 2011년 경찰야구단에 입단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난 뒤인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두산 외야의 주전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해 119경기에서 타율 0.319, 9홈런, 65타점을 마크했고, 도루도 27개나 기록했다.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자랑했다. 2013년 LG 트윈스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선 9회초 경기를 끝내는 정확한 홈 송구로 역대 포스트시즌의 명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도 재기를 노렸던 롯데 민병헌이 2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프로 16년간 두산과 롯데 소속으로 활약한 그는 리그를 대표하는 호타준족의 외야수였다. 스포츠동아DB

2014년에는 타율에서 커리어하이를 찍었다. 124경기에서 타율 0.345, 12홈런, 79타점을 올렸다. 이후 민병헌은 2019년까지 매 시즌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며 꾸준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 2016년 통합우승에 앞장선 그는 2017년을 마친 뒤 프리에이전트(FA) 권리를 획득해 시장으로 나갔다. 공수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모습을 롯데가 높이 평가했고, 4년 8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안겼다.

롯데에서 첫 두 시즌은 성공적으로 보냈지만, 지난해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저하된 모습 속에 0.233의 타율로 시즌을 마쳤다. 원인은 부상이었다. 민병헌은 올 1월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장기 재활에 들어갔다. 2019년 처음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고, 정기검진을 통해 추적해 온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현역 복귀가 어려워보였으나 투지를 불태우며 그라운드에 돌아오는 기적을 보였다. 5월 26일 올 시즌 처음 1군에 등록됐고, 그 뒤 14경기에서 타율 0.190을 기록했다. 올 시즌을 동료 선수들과 함께 마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결단을 내린 뒤 구단에 전했다.

민병헌은 "선수생활 종반을 롯데에서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구단에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다.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년부터 롯데에서 뛴 민병헌은 올 시즌까지 총 4시즌 동안 342경기에서 타율 0.286, 28홈런, 134타점을 기록했다. 프로통산 성적은 1438경기에서 타율 0.295, 99홈런, 578타점이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 두산 김태형 감독 "몸이 안 좋아서 은퇴…병헌이가 가장 아쉬울 것"

**아끼는 옛제자 이른 은퇴에 씁쓸**
**서튼 감독 "프로페셔널의 표본"**

롯데 자이언츠 래리 서튼 감독과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이 외야수 민병헌(34)의 이른 은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롯데 민병헌은 2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올 1월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5월 그라운드로 복귀했으나, 꾸준하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결국 은퇴를 결심했다.

롯데 서튼 감독은 26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을 앞두고 민병헌의 은퇴에 대해 "우리 팀에서 매우 좋은 '리더' 역할을 한 선수였다.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의 은퇴를 먼저 축하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1군 감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많은 추억은 없다. 그러나 민병헌은 항상 팀에서 '프로페셔널'의 표본이 되는 선수였다. 항상 열심히 하고, 어린 선수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는 '리더'였다"고 덧붙였다.

몸 상태에 대해선 "1년 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경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몸 컨디션이 따라주지 못했다. 꾸준하게 경기를 나갈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민병헌의 전 소속팀인 두산 김태형 감독도 제자의 이른 은퇴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날 잠실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선수 본인이 가장 아쉽지 않겠나.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하는 거라 (민)병헌이는 더 그럴 것이다. 본인이 이래저래 힘들었던 모양"이라며 씁쓸함을 삼켰다.

고척 | 장은상 기자

## 10월 9일부터 잔여경기…11월 1일 가을야구 돌입

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우천 등으로 연기된 잔여 81경기의 일정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잔여경기는 다음달 9일부터 펼쳐지며 올해 페넌트레이스는 10월 30일 종료된다. 11월 1일부터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포스트시즌(PS)에 돌입한다.

KBO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짜여진 기존 일정에서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올 시즌 경기 취소 시 시행세칙에 의거한 경기일로 우선 편성한다. 해당 세칙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달 9일 이후 잡혀있는 예비일 또는 추후 편성으로 다시 일정을 조정한다.

추후 편성 경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9일 이후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다음날 대진에 따라 재편성 방식이 달라진다. 다음날 경기가 동일 대진인 경우에는 다음날 더블헤더로 편성되며, 다음날 경기가 동일 대진이 아닐 경우에는 ①발표된 일정의 예비일 ②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③동일 대진 싱글 경기 더블헤더 ④추후 편성의 순으로 다시 일정을 확정한다.

KBO리그 경기결과 ▶26일

| | | | | | |
|---|---|---|---|---|---|
| 잠 실 | 한화 | 3 | : | 5 | 두산 |
| 고 척 | 롯데 | 2 | : | 11 | 키움 |
| 수 원 | LG | 4 | : | 0 | KT |
| 대 구 | NC | 0 | : | 1 | 삼성 |
| 광 주 | SSG | 5 | : | 6 | KIA |

예비일 및 더블헤더 편성 시 한 팀의 연전은 최대 9연전까지 가능하다. 우천 등으로 연기되는 경기가 PS 각 시리즈와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에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의 이동일 또는 PS 기간 중 치를 계획이다.

한편 공휴일인 다음달 9일 경기시간은 8일이 이동일임을 고려해 오후 2시가 아닌 오후 5시에 시작한다. 대체공휴일인 다음달 4일과 11일 편성되는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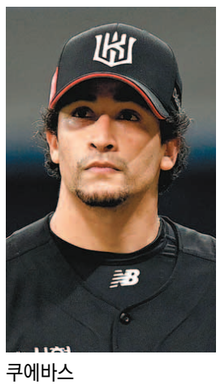
최용석 기자

## KT 쿠에바스 어지럼증 호소…오늘 정밀검사

KT 위즈는 26일 수원 LG 트윈스전 선발투수로 좌완 심재민(27)을 내세웠다. 후반기 들어 6명으로 선발진을 운영하고 있는 KT가 로테이션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재민을 기용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졌다.

KT 이강철 감독은 경기 시작에 앞서 "어제(25일) 오후 갑작스럽게 윌리엄 쿠에바스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에바스가 어떤 이유로 어지럼증이 느끼는지 내일(27일)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결과를 지켜봐야 쿠에바스의 다음 스케줄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KT는 28일부터 한 차례의 더블헤더를 포함해 6일간 7경기를 치러야 한다. 다소 빡빡한 일정이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는 4일을 쉬고 선발등판하는 스케줄을 지키고 있다. 쿠에바스, 소형준, 엄상백, 배제성, 고영표 등도 최근까지 꾸준히 선발로테이션을 지키고 있어 큰 어려움은 따르지 않을 듯했다. 하지만 쿠에바스가 갑작스럽게 빠지게 됐고, 검진 결과에 따라선 또 한번 대체선발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쿠에바스

쿠에바스는 후반기 시작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부친상 등으로 2주 넘게 결장했다. 이달 3일 고척 키움 히어로스전으로 1군에 복귀한 그는 4경기에 선발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점(ERA) 5.64를 기록했다. 3.1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던 15일 잠실 두산 베이스전을 제외한 3경기에선 모두 6이닝 이상 책임지며 KT가 선두를 질주하는 데 힘을 보탰다.

수원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알립니다

'스포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공모

**스포츠단체, 기업·브랜드, 지자체 등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11월17일 시상**

2021 KOREA SPORTS AWARDS

스포츠동아는 '2021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Korea Sports Awards)'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은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단체, 기업·브랜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인, 동호회 등 우수 공헌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됐습니다.

스포츠동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 상은 ▲리더 ▲브랜드 ▲기업 ▲스포츠장비 및 시설 ▲동호회 ▲생활체육 ▲영스포츠 ▲전통체육 ▲기타 특별 분야에 걸쳐 공모합니다.

응모 자격은 스포츠 관련 ▲유공 체육인 ▲정책 공헌자 ▲스포츠진흥 기업 또는 개인 ▲지자체장 ▲생활스포츠 리더 ▲스포츠 용품사·브랜드 ▲스포츠 프로그램 ▲스포츠 동호회 임직원 및 후원자 등입니다.

후보자는 ▲응모신청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 마감** : 2021년 10월30일(토)
- **접수** : sol@donga.com
- **시상식** : 2021년 11월17일(수) 오후 2시(장소는 추후 공지)
- **문의** : 코리아스포츠진흥대상 기획팀(02-361-1616)
- **주최** : 스포츠동아 ●**주관** : 스포엑스컴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